

全北地域을 중심으로한 地域經濟 構造에 관한 研究

* 李 成 鐸
** 朴 河 燮
*** 金 然 亭
**** 金 玟 成

논문 초록

本 研究는 經濟成長패턴과 全北地域經濟 構造의 변동추세를 비교분석함으로써 全北地域經濟의 相對的 位置를 파악하고 地域經濟 構造上에 나타난 制約的 要因과 變化可能性을 나타내는 성장잠재력을 糾明하여 全北地域經濟의 보다 신속한 發展을 促進시키려는 데 있다.

全北地域의 經濟成長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全北地域의 工業化를 促進시키고, 産業構造改善, 雇傭基盤擴充, 또한 社會間接 資本의 과감한 投資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地域經濟構造를 改善시킴으로써 地域經濟成長을 促進시킴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 地域融差를 縮小시키고 國土의 均衡있는 空間秩序를 確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근본적인 개선의 方向은 全北地域住民의 적극적인 開發意志가 先行되고 또한 國家의 地域開發政策과의 조화속에서 地域經濟構造를 改善할 수 있으리라 본다.

I. 序 論

1. 研究의 意義

우리나라는 6次에 걸친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高度의 經濟成長을 성취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成長主導의 經濟發展計劃은 항상 이면적 관계를 갖는 經濟의 不均衡 혹은 二重構造 등을 표출하게 되었다. 그 결과 不均衡成長에 의한 非能率의 해소와 國土의

* 全州大學校 經營學科 教授

** 全州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 全州大學校 統計學科 教授

**** 韓國經濟研究所

***** “이 論文은 1987 年度 分교부 학술연구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경영학연구 제18권 2호(1989년 2월)

效率的인 利用등의 관점에서 地域成長 혹은 地域經濟開發의 均衡化는 1980年代 前半부터 가장 중요한 政策的 課題로 등장하였다.

이와 다른 한편으로, 全北地域의 相對的 落後는 이지역의 工業發達이 부진하였다는 점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全北地域이 傳統的으로 他地域에 비해 農業部門이 발달하여 工業化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지 못하기도 하였으나, 근원적으로 高度經濟成長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成長據點戰略을 취한 결과, 工業發展을 위해 필수적인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投資가 미비하여 工業立地與件이 불리한데 기인한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國內投資與件의 호전과 對中共直接貿易의 가능성은 全北地域開發의 새로운 계기로 인식되며, 이는 곧 公業화를 통한 全北地域成長의 중요성에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落後된 地域의 經濟成長을 위하여 地域經濟構造를 어떻게 改善시킬 것인가 하는데 本 研究의 意義가 있다.

2. 研究의 目的

한나라의 經濟成長은 地域의 經濟的 變化가 持續적으로 增加하는 現象을 意味하는 地域經濟成長의 總化로 표현되는데, 地域經濟의 成長은 地域經濟構造의 變化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볼 때 經濟成長은 한 나라의 모든 地域에 있어 同一하지 않고 地域間 規模經濟와 集積經濟의 差異로 因하여 地域間隔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地域經濟構造面에서도 相異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地域經濟의 構造的 變動은 具體的으로 産業의 生産 및 雇傭構造에 나타나고 經濟全般에 影響을 주어 國民總生産의 變化에 直接的인 效果를 나타내게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 研究는 現在에 이르는 國民經濟的인 經濟成長패턴과 全北地域經濟構造의 변동추세를 비교분석을 통해 全北地域經濟의 相對的 位置를 把握하고 全北地域經濟構造上에 나타난 制約的 要因과 地域經濟構造의 變化可能性을 나타내는 成長潛在力을 糾明하여 全北地域經濟의 보다 迅速한 發展을 促進시키려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3. 研究方法

本 研究는 앞에서 言及한 研究目的에 따라 意味있는 結論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研究範圍를 設定하였다. 우선 時間的範圍는 1970년부터 1985년까지의 比較 가능한 範圍내의 각종 統計値를 活用하였다. 內容的으로는 研究의 性格上 地域經濟

構造를 단순히 産業構造에 局限시킨다는 것은 地域의 特性을 無視하기 쉽기 때문에 가능한 한 地域의 特性을 고려하는 意味에서 地域經濟構造를 改善시킨다고 前提하고 地域經濟構造를 地域人口, GNP, 地域間經濟隔差, 産業構造, 地域雇傭構造, 社會間接資本의 投資 등으로 區分하고 이를 具體的인 問題의 對象으로 삼았다.

研究方法은 本 研究와 관련된 文獻을 考察하고 經濟成長에 따른 地域問題와 地域經濟構造의 相異性으로 인한 地域經濟隔差問題를 개관하며 이에 따라 韓國經濟構造의 變化推移를 考察하였다. 특히 經濟成長過程에서 落後性이 심각한 문제 지역으로 대두된 전북지역경제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타시·도지역의 경제구조와 전북지역 경제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時系列資料에 의한 統計表를 作成하고 分析評價를 하였다. 또한 經濟部門의 專門化程度를 測定하기 위하여 地域特化係數 또는 立地係數등을 使用하여 地域經濟構造의 취약점과 問題點을 제기하고 構造的 矛盾을 除去하기 위한 計量的 分析根據를 提供하였다.

II. 地域經濟와 地域隔差

1. 地域經濟의 理論

經濟問題는 時代의 變遷과 더불어 그 樣相을 달리하여 왔으며, 그때그때 그 解決策을 찾기 위해 많은 理論的 研究와 社會的 實驗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現代社會의 複雜性에 따른 經濟問題의 解決은 전과 같이 그렇게 單純하지는 않다. 地域과 地域間的 經濟問題는 더욱 複雜하고 그 經濟活動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힘든 과제이다. 따라서, 지역간의 경제문제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現代에 따른 理論的 背景을 優先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意義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地域經濟理論은 新古典理論을 비롯해서 立地理論(location theory), 地域間交易理論(inter-regional trade theory), 部門成長理論(sector growth theory), 累積因果異論(cumulative causation theory), 輸出基盤理論(export base theory) 및 産業構成成長理論(industrial mix growth theory) 등으로 大別할 수 있는데 이러한 理論들은 대개 均衡 및 不均衡理論, 成長 및 乘數理論이 主流가 되고 있다.¹⁾ 또한 地域經濟를 工業關聯基盤施設에 초점을 두고 工業立地側面에서

1) 朴西浩 外7인, “地域發展論”, 녹원출판사, 1988.3, pp.285~292.

經濟의 成長과 發展을 糾明하려는 企業立地決定에 관한 理論으로 最小費用理論과 最大需要理論등의 古典의 立地理論과 行態의 接近方法들이 제시되어 오고 있다.²⁾

또 다른 한편으로 Kutznets, Goodall³⁾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地域經濟發展은 地域成長의 一般的 課題이며, 地域內雇傭機會 및 所得水準의 向上등을 主要 目標로 하여 地域內 經濟的 隔差을 重視하게 되었다. 이러한 地域間 經濟的隔差를 해소하려는 地域經濟發展戰略은 전통적으로 R.Nurke (1955)가 주장한 均衡開發理論과 A.O.Hirschman (1958)이 주장한 不均衡 開發理論으로 大別되고 있으며 後者は F.Perroux의 成長極理論, J.Friedman의 空間概念이 附加되어 “成長據點” 혹은 “成長地中心地” 戰略으로 擴大 發展되어 왔다.⁴⁾ 이것은 地域計劃의 基礎理論으로 形成되어온 G.Myrdal (1975)의 逆流效果 (backward effect)와 波及效果 (spread effect) A.D.Hirshman (1958)의 分極化效果 (polarization effect)와 漏通效果 (tricking down effect) 그리고 Friedman (1966)의 中心一周邊모델 (center periphery model) 등으로 전개되어 工業立地論과 함께 地域經濟의 發展의 主要 理論的 根據가 되어 있다.

2. 地域經濟構造와 地域隔差

構造의 개념을 함즈 (B.Harms)는 여러 부분이 하나의 통일된全體로 집결되어 있는 樣態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正義하였다. 또한 그는 經濟를 구성하는 各 部分의 動向은 均一的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發展動向은 다른 後退動向을 수반하기 때문에 構造變化를 招來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클라크 (C.G.Clark)는 그의 産業構造論에서 産業을 第1次産業, 第2次産業, 第3次産業의 3部門으로 나누고 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이들간의 比率이 서로 變化되는 過程을 構造的인 側面에서 測定하였다.⁵⁾ 레온티프 (W.W.Leontief)도 産業關聯分析을 통하여 經濟의 構造分析을 시도하였다. 經濟學의 中心課題가 靜學에서 動學으로 移行되어짐에 따라 경제성장론은 해로도 (R.F.Harrod), 도마 (E.D.Domar) 등의 구조분석으로 이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接近方法

2) 工業配置計劃研究班, “企業의 立地決定要人分析” 産業研究院, 1987.1, pp.3-53.

3) B.Goodall, “The Economic of urban Areas” Oxford: Pergumon press, 1972, pp.205-232.

4) 林永大, “工業立地の 研究動向: 地域論의 接近”, 부산여대논문집, 제 19집, 1985, pp.301-328.

5) C.G.Clark, “The Condition of Economic Progress” 1951.

은 오늘날 널리 각광을 받고 있다.⁶⁾ 그러나, 經濟構造는 國民經濟를 形成하는 要素들이 相互聯關의 關係를 갖고 복잡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그 經濟的인 構造體 自體도 內部的 構造를 가지고 변화하기 때문에 전체 經濟構造의 變化를 일률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렇지만, 一般的으로 經濟構造의 變化는 經濟成長과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으며 經濟發展은 經濟規模의 量的인 成長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經濟成長을 持續시키고 安定성을 보장해 주는 經濟構造上의 質的인 變化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經濟의 構造的 變換은 오늘날 특히 開發途上國들에 있어서 政策目標 設定의 基準이 되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地域經濟構造上에 있어서 어떤 부분의 不安定要因이나 취약점이 노출될 경우에는 이의 是正 및 效果的인 타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써 國民 經濟의 長期的이고 지속적인 經濟發展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開發途上國들의 經濟發展에 대한 政策方向이 허쉬만 (A.O.Hirschman)의 不均衡成長論에 입각한 經濟規模의 量的인 擴大에 중점을 둬으로써 經濟構造上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소위, 허쉬만 (A.O.Hirschman)의 連續的 不均衡成長의 最終結果는 연계적 발전의 논리이지 經濟構造上에 있어서 經濟各部門의 不均衡狀態를 擴大시켜나가는 論理는 아닌 것 같다.⁷⁾

한편, 經濟構造가 地域間에 相異함으로 인하여 問題地域과 開發地域은 地域經濟 체계에 있어서 地域間隔差도 나타난다. 이러한 地域隔差를 招來케 하는 여러가지 要因들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⁸⁾

첫째로 勞動의 相對的 低可動性이다. 古典理論에서는 勞動의 賃金隔差에 대한 硬直性を 소홀히 하고 있다. 즉, 勞動者들은 임금격차에 즉각적으로 反應하지 않고 매우 느슨하게 적응해 간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勞動의 相對的 低可動性和 함께 需要의 隔差는 一定한 均衡에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끊임없는 隔差要因이 될 수 있다.

둘째로 資本의 相對的 低可動性이다. 지금까지 勞動과 함께 生産要素인 資本도 매우 可動的인 것으로 고려되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勞動의 경우 처럼 生産費의 差異에 대한 資本의 反應에도 분명히 硬直性이 作用하기 때문에 企業의 資本需要에 대한 資本의 可動性은 相對的으로 낮다.⁹⁾

6) 沈相銑, “韓國 經濟構造相의 隔差變動分” 全北大學教論文集 第7輯, 1977, p.159.

7) A.O.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8) 崔落弼, 全北地域經濟構造의 變動推移에 관한 研究, 全北大學教論文集, 第26輯 1984.

9) N.Vanhever and L.H.Klassen, “Regional policy a European Approach Sex-an, house” pp.2-3.

세째로 地理的 要因이다. 넓은 의미로 地域隔差의 가장 一般的인 說明은 물론 地理的位置를 자주 들고 있다. 이것은 먼저 어떤 地域이 一定한 經濟活動의 中心으로 부터 고립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또한 地域經濟開發에 必要한 自然資源의 地域偏在도 地域隔差를 擴大시킨다. 즉, 어느 地域은 資源의 稀少性에 絶對 支配당하고 있는가 하면 特定地域은 오히려 豊富한 資源과 原材料의 惠澤속에 있다면 두 地域의 不均衡成長은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네째로 經濟構造側面이 있다. 즉 모든 地域은 經濟의 部門的構成에 관한 한 각기 獨特한 經濟構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經濟的으로 沈滯 또는 斜陽 産業 部門을 主産業으로 가진 地域에서는 심각한 雇傭問題를 야기시키는 반면에 機械 製造, 化學, 電氣 및 金融等 比較的 勞動生産性과 資本의 報酬가 높은 成長産業이 主産業인 地域에서는 오히려 雇傭機會의 擴大와 이에 따른 勞動需要 增加가 促進된다. 이 때문에 어떤 地域 또는 都市의 成長 및 沈滯가 교차될 수 있으며 地域의 經濟構造에 즉각적으로 반영시킨다.

다섯째로 人口統計的 國面이다. 人口移動 또한 地域所得隔差要因이 된다. 여기에는 두가지 사실에 근거한다. 즉 하나는 農村人口의 都市로의 移動은 比較的 生活水準과 教育水準이 낮은 地域에서보다 教育水準이 높고 부유한 地域에서 크게 나타난다는點과 다른 하나는 높은 生産力으로 인한 勞動供給의 相對的 自然增加에도 불구하고 그 地域의 經濟構造가 勞動供給의 自然增加率과 同等 또는 그 以上으로 就業機會를 增加시키지 못할때는 심각한 雇傭問題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로 逆流效果와 波及效果의 현상이다. 뮈달(G. Myrdal)은 市場力의 機能이 正常的으로는 地域間의 不均衡을 減少시키기보다는 차라리 더욱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人口移動, 資本의 移動, 貿易 등을 통해서 先進地域에서는 더욱 上向으로, 後進地域에서는 더욱 下向으로 集積되는 과정을 매개하는 機能을 한다고 주장한다.¹⁰⁾ 이에 대하여 뮈달(G. Myrdal)은 세가지 종류의 波及效果를 例로 들고 있다. 하나는 1次的으로는 Thünen의 理論에서 言及된 農産物에 대한 販路의 擴大로 波及되고 다른 하나는 第2次的 波及效果로써 中心地隣近地域의 技術的 變化에 대한 자극으로, 마지막으로 新企業의 移動을 誘引한다. 즉 뮈달(G. Myrdal)에 의하면 都市의 遠心的 效果가 먼 地方까지 波及되어 中心地에 대한 生必需品의 供給 또는 그 地域의 成長産業에 대한 原料生産을 위해 有利한 條件에 놓이게 하면서 原料指向的인 새로운 企業 및

10) G.M. Myrdal,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London, 1975, pp.26-29.

中心地의 産業集積에 따르는 地代 및 社會的費用的 增大에 큰 影響을 받는 産業들의 中心地와 地域으로의 移動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以上에서 설명한 逆流效果와 波及效果는 開發地域과 低開發地域의 모든 經濟的關係를 대변할 수 없으며 完全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一般的으로는 大部分의 경우 逆流效果는 波及效果보다 더욱 크게 作用하여 地域隔差의 根源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以上の 地域經濟分에 對한 諸理論을 基礎로 全北地域經濟構造에서 나타난 諸特徵을 把握하고 地域隔差의 程度와 그 構造的 根據를 究明하여 본다.

Ⅲ. 全北地域 經濟 構造의 分析

1. 地域人口

全北地域의 面積은 8千km²로써 全國土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全北 人口에 대한 比率은 5.3%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 農業 人口는 40.9%로써 全國의 19.9%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나 耕地面積(田畝) 比率은 全國의 21.6%에 비하여 9%포인트나 높은 30.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人口趨勢도 1970년대를 基準으로 全國은 30.9%를 증가하였으나 全北은 오히려 10%나 減少現象을 보이고 있다. <表 1 참조>

<表 1> 人口 耕地 面積 對比

	1970		1986	
	全 國	全 北	全 國	全 北
人 口	31,435 천명	2,434 천명	41,569 천명	2,192 천명
農 業 人 口 比 率	45.9%	71.5%	19.9%	40.9%
耕 地 面 積 (田 畝) 比 率	23.3%	32.2%	21.6%	30.6%

이와 같은 現象은 經濟 成長과 産業 構造의 變遷 過程에서 各 地域의 人口와 産業의 地域的 分析에 많은 變化를 惹起시켰다. 首都圈을 中心으로한 大都市에는 人口의 集中 및 過密現象이 발생하게 되었고, 기타의 都市에서는 人口의 停滯減少現象이 發生하였다.

우선 居住人口의 地域別流動 程度를 살펴보기 위하여 人口의 地域間流動係數를 計

算한 결과 <표 2>와 같다. 즉, 人口의 地域間流動係數가 1966-1970년에는 이 기간의 高度成長을 반영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1970年代 초반에는 第1次 石油波動으로 인하여 製造業部門의 成長이 相對的으로 鈍化되었기 때문에 人口의 地域間流動係數가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表 2> 人口의 地域間流動 係數

기 간	인구의 지역간 유동계수	지 역 별 (d _i - d _i)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60-1966	25.30	25.52	1.68	-2.46	-1.89	-1.19	-1.14	-6.55	-2.38	-0.46	-8.32	0.01
1966-1970	70.16	63.19	14.90	0.36	-4.78	-2.29	-7.97	-12.58	-15.82	-11.71	-8.38	0.08
1970-1975	36.64	24.18	11.71	10.34	-6.08	-3.44	-6.36	-7.03	-13.42	-5.25	-4.97	0.27
1975-1980	53.60	34.19	18.82	21.14	-7.95	-7.98	-8.22	-13.26	-18.97	-10.48	-7.91	0.69
1980-1985	40.26	19.95	3.34	28.00	-6.93	-4.89	-6.40	-8.93	-11.13	-10.28	-2.37	-0.36

註：1. 경제기획원, 인구 센서스 보고서 (각 연도) 에 의해 작성

2. 인구의 지역간 계수 : $\sum (d'_i - d_i)^2$

단, d_i' : i 지역 인구 증(감) / 전국 인구 증(감) * 100

d_i : i 지역 인구수 / 전국 인구수 * 100

3. 趙鮮雄, “全北地域開發代案”, 韓國國際經濟學會

1987, pp.187-188, 재인용

그후 1970년대 후반부터 人口의 地域間 流動은 다소 緩化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는 人口의 大都市集中抑除, 工業의 分散, 地域 都市의 開發과 같은 政府 政策과 아울러 우리 經濟가 高度成長期를 지나 安定期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80年代에는 人口流動現象이 가장 두드러진 地域으로는 全南 (-11.13)이며, 그 다음이 慶北 (-10.28)이며, 全北은 -8.93으로 세번째로 人口 流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기도 地域으로의 人口 集中 現象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사실은 政府의 工業 分散化 政策의 效果가 전국적으로 擴散되지 않고 大都市 隣接地域에 국한된데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2. GRP의 地域間 比較

地域間 經濟 不均衡은 地域住民所得(G.R.P)를 통하여 그 隔差를 쉽게 看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1982년 이후 공식적인 住民所得統計는 發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精確한 隔差의 規模는 糾明되지 않는 실정이고, 단지 몇몇 研究에서 이러한 점들이 암시되어 올 뿐이다. 한 地域에서 生産되는 것이 전부 그 地域의 所得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일하는 地域과 居住하는 地域이 다를 수 있다는 점때문에 地域 總生産과 地域 總所得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地域 總生産水準의 차이로써 地域所得 隔差를 보려 할 때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表3은 1970년에서 1985년 사이의 1인당 地域 總生産額(GRP)水準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또한 1985년에 GRP가 가장 낮은 全南을 基準(100)으로 하여 指數를 구하고 이에 따라 範圍와 變異係數를 구한 결과 表4과 같다. 1970년의 變異係數는 0.4870으로 1975년의 0.2679의 2배 가까이 높아 1975-1980년 사이보다 1970-1975년 사이의 地域間의 所得隔差는 크게 줄고 있으며, 1980-1985년 사이는 다소 완만하게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範圍도 비슷한 유형으로 줄고 있으나 1985년 現在 57로써 아직도 높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全南北이 가장 낮은 水準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서울, 인천, 경남 등이 높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비교적 工業化가 뒤지고 農業이 産業構造의 主從을 이루고 있는 全南北을 이루고 있는 全南北의 1인당 GRP는 아직도 낮은 水準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表3> 1인당 GRP (1980년 不變價格)

(單位: 千圓 / 名)

연도		1970	1975	1980	1985*
시·도					
서	울	1,232.7	1,075.9	1,297.7	1,666.7
부	산	725.3	801.8	910.4	1,395.8
대	구	614.8	802.8	720.7	1,247.2
인	천	798.4	1,001.3	904.6	1,634.5
경	기	385.4	662.7	967.3	1,382.1
강	원	391.0	523.7	734.2	1,246.2

연도		1970	1975	1980	1985*
시·도					
충북		426.5	622.8	864.3	1,241.6
충남		389.7	524.9	748.3	1,056.6
전북		374.7	526.9	727.2	1,065.5
전남		344.6	513.6	781.7	1,061.1
경북		301.5	514.9	691.7	1,254.6
경남		449.7	741.4	1,085.0	1,587.4
제주		401.4	580.4	833.0	1,222.9

자료 : 내무부 “住民所得年報”, 각 연도분

* 1985년 “住民所得年報”가 간행되지 않아 추계한 것임.

<表 4> 지수 (1980년 不變價格)

연 도		1970	1975	1980	1985
시·도					
서울		358	210	166	157
부산		211	156	117	132
대구		179	157	92	118
인천		232	195	116	154
경기		112	129	124	130
강원		114	102	94	118
충북		124	121	111	117
충남		113	102	96	100
전북		109	103	93	101
전남		100	100	100	100
경북		88	100	85	118
경남		131	144	139	150
제주		117	113	107	115
범 위		270	110	81	57
변 이 계 수		0.4870	0.2679	0.1947	0.1443

또한, 각 地域의 面積當 地域總生産額을 살펴봄으로써 地域間의 隔差를 分析할 수 있다. 이 分析方法은 人口의 地域分散등 人口의 側面에서의 地域的 均衡成長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 現時點의 政策的 觀點에서 보면 미래 예측적인 側面에서 그 효용성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經濟密度를 分析해 보면, 經濟密度는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매년 增加하여 1970년의 1億 7千 7百萬원에서 1985년 5億 6千 2百萬원으로 增加하였다. 1985년의 경우 經濟密度가 가장 큰곳은 서울시로 265億 5千萬이고, 다음으로 부산 112億 9千萬원이며, 가장 낮은 도는 강원도 1億 2千 7百萬원이다. 全北地域은 2億 9千 2百萬원으로 하위권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5> 市·道別 經濟密度 (1980년 不變價格)

(단위: 천원 / km²)

시·도	연도	1970	1975	1980	1985
서울	서울	10,926,150	12,346,453	17,879,268	26,554,680
부산	부산	3,582,265	5,229,588	6,655,010	11,292,921
대구	대구	3,673,517	5,908,995	6,446,388	5,566,299
인천	인천	3,042,817	5,018,386	4,890,386	10,972,894
경기	경기	95,112	197,414	343,478	610,187
강원	강원	42,978	57,924	77,868	127,325
충북	충북	83,399	127,506	165,601	232,330
충남	충남	125,803	176,450	251,845	362,075
전북	전북	111,061	160,604	206,006	291,176
전남	전남	112,380	169,321	242,883	324,667
경북	경북	19,619	93,069	117,820	194,437
경남	경남	115,095	203,507	804,207	470,931
제주	제주	78,559	152,886	177,321	327,705
계		177,201	250,275	355,864	562,509

그리고, 地域總生産의 年平均成長率은 表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0-1985년 동안 경기도가 36.4%로 가장 많이 성장하였으며, 다음이 인천(23.1%), 제주(21.0%)이며, 가장 낮은 成長을 보인 地域으로는 서울로 9.3%, 경남이 8.6%이나

전북은 전체성장을인 14.6%보다 낮은 10.8%의 성장을 보였다. 또한 1980년대에서 제일 높은 성장을 보인곳은 인천(26.2%)이고, 가장 낮은 성장을 보인곳은 全南으로 6.9% 성장이며, 全北은 8.1%의 성장을 보여 하위권에 속해 있다. 이상의 經濟密度에 의한 分析을 綜合해보면 1970년대이후 계속 地域間 經濟力의 차이는 相對的으로 줄고 있으나 아직도 그 隔差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6> 市·道別 地域 總生産의 年平均 成長率

(단위: %)

연도		1970~75	1975~80	1980~85	1975~85
시·도					
서울	울	2.1	9.3	9.6	9.3
부산	산	1.0	9.2	14.1	17.8
대구	구	12.2	2.0	23.7	19.1
인천	천	11.7	4.5	26.2	23.1
경기	기	21.8	14.7	15.6	36.4
강원	원	7.8	7.0	12.7	13.3
충북	북	10.6	5.3	8.0	11.9
충남	남	8.3	8.6	8.9	12.8
전북	북	8.9	5.7	8.1	10.8
전남	남	10.1	8.9	6.9	12.9
경북	북	15.5	5.4	12.6	17.8
경남	남	15.4	9.6	11.0	8.6
제주	주	18.7	3.3	17.0	21.0
계		8.4	8.5	11.7	14.6

3. 地域間 經濟隔差

地域間經濟隔差는 여러가지 接近方法으로 研究될 수 있으나 國民經濟와 地域 經濟의 相互依存關係에서 分析되고 있는데, 이러한 分析方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¹¹⁾

11) 柳旺熱, 李東信, “地域開發과 地域經濟活性化問題”, 國土計劃, 第21集, 제1호, 1986, pp.25-27.

$$\frac{\Delta r_i}{r_i} = \frac{\Delta \left(\frac{R_i}{Y} \right)}{\left(\frac{R_i}{Y} \right)} + \frac{\Delta \left(\frac{P}{p_i} \right)}{\left(\frac{P}{p_i} \right)} + \frac{\Delta y}{y} + M$$

단, Y : 國民總生産

R_i : i 地域의 人口總生産

P : 全國人口

y : 全國의 1인당 GNP

r_i : i 地域의 1인당 GRP

p_i : i 地域의 人口

$$M = \frac{\Delta \left(\frac{R_i}{Y} \right)}{\left(\frac{R_i}{Y} \right)} \cdot \frac{\Delta \left(\frac{P}{p_i} \right)}{\left(\frac{P}{p_i} \right)} + \frac{\Delta \left(\frac{P}{p_i} \right)}{\frac{P}{p_i}} \cdot \frac{\Delta y}{y} + \frac{\Delta \left(\frac{P_i}{Y} \right)}{\left(\frac{R_i}{Y} \right)} \cdot \frac{\Delta y}{y} + \frac{\Delta \left(\frac{R_i}{Y} \right)}{\left(\frac{R_i}{Y} \right)} \cdot \frac{\Delta \left(\frac{P}{p_i} \right)}{\left(\frac{P}{p_i} \right)} \cdot \frac{\Delta y}{y}$$

i 地域의 1인당 GRP 成長率 ($\Delta r_i / r_i$)은 地域의 全國에 대한 所得比變化 效果 (우변 첫째항), 人口比變化效果 (우변 둘째항), 國民所得成長率效果 (우변 셋째항), 그리고 이들 세要因의 複合效果 (M)의 合計로 표시된다. 또한 위式은 한 特定地域의 1인당 GRP 成長率이 全國에 대한 당해 地域의 所得配分 그리고 당해지역의 人口移動에 따른 變化에 影響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7>은 1975-1985년 동안 각 시도별 1인당 GRP 成長率은 위 式에 의하여 推計한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¹²⁾

分析期間동안 1인당 GRP 成長率의 全國平均은 95.37%인 반면에 GNP 成長率 109.69%보다 낮으며, 地域間成長率에 있어 극심한 偏差를 나타내고 있다. 급속한 成長率을 나타내고 있는 地域은 서울 및 부산 地域과 隣接하고 있는 주변地域 즉 경기, 경남, 경북지역 등이고, 이들과 비교적 원격지지역들은 相對的으로 둔화되고 있다. 물

12) 沈相鎭의 3인, 上揭書, pp.120에서 재인용.

론 이러한 결과들은 地域經濟成長의 效果가 中心에서 주변으로 擴散된 반면 이들 地域과 隣接지에 位置한 其他地域들은 오히려 역류효과가 作用되어 地域成長의 역력이 이들 地域으로 吸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全北地域은 個人住民所得成長率이 56.84%로 國民所得成長效果의 基準値에 커다란 偏差를 나타내고 있다.

<表7> 地域間 所得隔差 要人

지역	구분	1인당 GRP 성장율	소득비 변화효과	인구비 비율효과	국민소득 성장효과	복합 효과
서울	울	74.38	8.28	-20.25	109.69	-13.79
부산	산	48.44	4.96	-30.64	109.69	-26.00
경기	기	113.36	36.46	-20.18	109.69	-1.05
강원	원	115.89	-14.05	25.58	109.69	4.25
충북	북	81.80	-29.81	29.73	109.69	-16.25
충남	남	85.69	-20.39	15.76	109.69	-9.80
전북	북	56.84	-40.87	28.97	109.69	-31.39
전남	남	101.01	-17.39	28.98	109.69	1.80
경북	북	129.48	2.53	11.52	109.69	13.30
경남	남	143.63	12.55	9.17	109.69	21.78
제주	주	88.12	-1.96	-4.41	109.69	-5.64

資料：內務部 住民所得年報 各 市·道の 統計年報, 各 年號

所得比率化效果에서 大都市와 경기, 江南·북 등은 正의 成長을 보인 反面에 충청남·북, 全라남·북 등 기타 地域은 負의 成長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대단위 公업 단지가 조성된 지역을 中心으로 地域經濟成長의 效果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現象은 人口比率化效果에서도 같은 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로 正의 成長을 나타낸 地域들은 負의 所得比率化效果를 보인 地域으로 人口의 流出로 인한 個人住民所得의 向上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부산 地域에는 급속한 人口集中을 가져 왔으며, 周邊地域과 함께 國民經濟成長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특히, 地域間所得配分에 있어 극심한 隔差를 보이고 있는 地域은 경기와 全北地域이다. 즉 경기지역은 36.46%로 가장 급속한 成長을 이룩한 반면 全北地域은 -40.87로 오히려 심각한 鈍化現象을 나타내주어 地域間隔差가 가장 극심한 地域임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4. 地域産業構造

1960년대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農業위주의 産業 構造가 製造業部門의 擴大로 第2次産業인 礦工業部門의 比重이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70년대의 産業構造도 같은 樣相이 持續되고 있으나 1980년에는 第1次産業 16.9%도 1970년의 31.5%보다 14.6% 포인트만큼 減少하였는바 이는 第2次 産業의 增加로 吸入되었던 것 같다. <表 8>

全北地域의 産業構造를 보면 經濟成長에 의한 産業構造의 變化로 인하여 第1次産業 比重이 낮아지고, 2, 3次産業의 比重이 높아졌으며, 1985년에는 各 産業別構成比가 31.2%, 22.5%, 45.8%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全國産業構造의 構成比와 비교할때 全北地域의 第1次産業 構成比는 매우 높게 나타난 反面 2次産業의 構成比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産業構造의 變化가 全北地域은 全國水準보다 低水準 으로서 工業의 生産基盤이 취약한 것을 보이고 있다.

<表 8>

全北의 産業構造

(단위 : %)

구분 연도	전라북도			전국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970	57.9	8.6	33.5	31.5	16.4	52.1
1980	39.2	16.9	43.9	16.9	30.7	52.4
1985	31.7	22.5	45.8	13.3	30.5	56.2

資料 : 全羅北道, 全羅北道綜合開發計劃 (1982, 1991), 1982.

이러한 全北地域의 취약한 經濟的 與件은 國民經濟와의 相互關係에서 뿐만아니라 地域內의 産業的 特徵에서도 言及될 수 있다. 즉 製造業의 地域別 分布狀態를 事業體數, 從業員 및 附加價值 등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表 9> 事業體數를 基準으로 할 때 全北地域은 1980년 3.9%에서 1985년 3.1%로써 0.8% 포인트가 減少되었으며 從業員數에서도 1985년 2.5%로 영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反해서 製造業이 活性化된 수도권 및 大都市地域은 1980년에서 1985년에 서울, 부산, 경기, 경남·북 地域의 製造業 從業員數가 全國의 87.4%를 차지하고 있다. 製造業部門이 大都市와 수도권 中心地域에 偏重되어 있기 때문에 全北地域을 포함한 기타

地域에서는 같은 기간중 製造業의 從業員數와 附加價値의 增加率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9>

製造業의 地域別 分布

(단위 : 천명, 백만원, %)

구분 지역	사 업 체 수		종 업 원 수		부 가 가 치	
	1980	1985	1980	1985	1980	1985
전 국	30,824 (100.0)	43,037 (100.0)	2,015 (100.0)	2,439 (100.0)	11,876,589 (100.0)	26,736,623 (100.0)
서울특별시	7,652 (24.8)	13,627 (30.7)	445 (22.1)	483 (19.8)	2,193,110 (18.5)	3,998,264 (15.0)
부산직할시	3,631 (11.8)	5,198 (11.8)	319 (15.8)	368 (15.1)	1,317,589 (11.1)	2,474,322 (9.3)
경 기 도	5,860 (19.0)	10,515 (23.9)	479 (23.8)	671 (27.5)	2,770,843 (23.4)	7,596,903 (28.4)
강 원 도	922 (3.0)	852 (1.9)	23 (1.1)	22 (0.9)	173,130 (1.5)	473,266 (1.8)
충 청 북 도	713 (2.3)	723 (1.6)	40 (2.0)	50 (2.1)	221,066 (2.3)	692,509 (2.6)
충 청 남 도	1,796 (5.8)	1,779 (4.0)	88 (4.4)	98 (4.0)	555,068 (4.7)	1,120,133 (4.2)
전 라 북 도	1,209 (3.9)	1,358 (3.1)	55 (2.7)	62 (2.5)	313,445 (2.6)	701,198 (2.6)
전 라 남 도	2,152 (7.0)	2,019 (4.6)	67 (3.3)	70 (2.9)	781,548 (6.6)	1,288,610 (4.8)
경 상 북 도	4,493 (14.6)	5,355 (12.2)	263 (13.1)	293 (12.0)	1,656,891 (14.0)	3,524,265 (13.2)
경 상 남 도	2,154 (7.0)	2,413 (5.5)	231 (11.5)	318 (13.0)	1,881,891 (15.3)	4,839,503 (18.1)
제 주 도	241 (0.8)	198 (0.4)	4 (0.2)	4 (0.2)	12,841 (0.1)	27,650 (0.1)

資料 :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鑑 各年號에 의해 作成

따라서, 全北 地域 經濟의 發展을 工業化에 초점을 맞추고 工業構造에서 갖는 構造的 特徵에 따라 地域 發展의 興件을 評價하여 보는 것은 또다른 한편으로 意義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立地係數와 生産特化係數를 活用하여 分析하고자 한다. 經濟基盤 理論에서 地域經濟의 基盤産業과 非基盤産業에 대한 決定方法으로 立地係數가 利用되고 있으며 特定地域의 比較優位産業을 決定하는 生産特化係數는 地域間 特定産業의 競争力을 評價하는 基準으로 活用되고 있다.

全北地域 製造業의 部門別 立地係數는 1971년에 음식료 및 담배 등 3개 部門이 1보다 큰 反面에 섬유, 의복, 가죽공업등 6개 部分에서 1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들 계수들을 비교해보면 偏差가 크게 나타나 特定 産業에 偏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全北地域의 生産特化係數는 立地計數와 대동소이하나 제재, 나무製品 部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産業波及效果가 큰 第1次 金屬製造業과 金屬製品, 機械裝備 製造業 部門은 1985년 약 0.1로 전락되어 全北地域 産業의 취약함이 더욱 深化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외 競争力의 弱화로 産業成長이 鈍化 또는 停滯되어 온 勞動集約的인 産業들인 제재, 나무제품업, 종이·인쇄출판업 그리고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등에 특화되어 왔다는 점은 오늘날 全北地域經濟의 相對的 열위를 가중시킨 要因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産業關聯效果와 高度의 技術集約産業의 필요성은 全北地域 産業 構造의 高度化에 絕對的 要件으로 인식된다.

<表 10> 全北地域의 製造業 立地係數와 生産特化係數

	입 지 계 수				생 산 특 화 계 수			
	1971	1976	1981	1985	1971	1976	1981	1985
음식료 및 담배	2.11	2.78	2.00	2.01	1.92	2.77	2.38	2.38
섬유·의류·가죽공업	0.65	0.89	1.17	1.34	0.45	0.61	1.33	1.71
제재·나무제품	3.29	3.87	3.33	2.77	4.01	4.81	4.95	2.28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	1.45	1.28	1.34	1.53	1.83	2.77	2.93	2.96
화학, 석유·석탄, 고무, 플라스틱	0.75	0.63	0.61	0.71	0.49	0.49	0.58	0.68
비금속 광물제품	0.81	0.82	1.35	1.54	0.22	0.31	0.52	1.86
제 1 차 금속제조업	0.40	0.26	0.22	0.38	0.08	0.04	0.02	0.11
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업	0.34	0.40	0.25	0.24	0.21	0.19	0.12	0.10
기타제조업	0.29	0.54	2.11	1.59	0.44	0.45	1.42	1.42

註)

$$1) \text{ 立地係數} = \frac{i \text{ 地域 } j \text{ 部門製造業從業員數}}{i \text{ 地域全製造業從業員數}} / \frac{\text{全國 } j \text{ 部門製造業從業員數}}{\text{全國全製造業從業員數}}$$

$$2) \text{ 生産特化係數} = \frac{i \text{ 地域 } j \text{ 部門的 製造業生産額} / i \text{ 地域 全製造業的 生産額}}{\text{全國 } j \text{ 部門的 製造業生産額} / \text{全國 全製造業的 生産額}}$$

資料：經濟企劃院，鑛工業センサス보고서，各年號에 의해 作成

5. 地域雇傭構造

勞動의 供給은 經濟活動의 增加로 나타나며, 勞動의 需要는 經濟發展으로 인한 雇傭機會의 創出에서 起因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地域의 雇傭構造는 生産構造와 더불어 地域經濟構造를 파악하는 중요한 指標로 使用된다.

全北地域의 經濟活動人口 中 勞動參加率은 1970年 55.8%에서 1986年 65.6%, 1985年 71.7%로 增大되어 全國水準 69.4%을 약간 上回하고 있다. 産業別人口는 15年동안 第1次産業이 65.1%에서 54.0%로 11.1% 포인트가 低下되었으나 全國의 1次産業減少率 25.6%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第2次産業은 同期間에 2.2% 증가하였으나 全國水準 10.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第3次産業은 同期間에 全國水準 50.6%에 훨씬 못미치는 34.5%를 나타냈다.

<表 11>

全北地域就業構造 推移

(單位：千人，%)

區 分	1970		1975		1980		1985	
	全 國	全 北	全 國	全 北	全 國	全 北	全 國	全 北
總 人 口	31,435	2,432	34,679	2,455	38,124	2,329	41,056	2,202
14歲以上人口	18,253	1,357	51,833	1,501	26,030	1,528	28,489	1,579
(勞動參加率)	(58.1)	(55.8)	(63.0)	(61.1)	(68.3)	(65.6)	(69.4)	(71.7)
經濟活動人口	10,199	773	12,340	1,015	14,454	855	15,554	848
(經濟活動參加率)	(55.9)	(57.0)	(56.5)	(67.6)	(55.5)	(56.0)	(54.6)	(53.1)
就 業 人 口	9,745	723	11,830	993	13,706	847	14,935	820
(就業率)	(95.5)	(93.6)	(95.9)	(97.8)	(94.8)	(99.1)	(96.0)	(97.9)
農林水産業	4,916	741	5,425	700	4,658	466	3,722	443
	(50.5)	(65.1)	(45.9)	(70.5)	(34.0)	(55.0)	(24.9)	(54.0)

區 分	1970		1975		1980		1985	
	全 國	全 北	全 國	全 北	全 國	全 北	全 國	全 北
鑛 工 業	1,916 (14.3)	67 (9.3)	2,265 (19.1)	84 (8.5)	3,096 (22.6)	91 (10.7)	3,654 (24.5)	94 (11.5)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비스업	3,434 (35.2)	185 (25.6)	4,140 (35.0)	209 (21.0)	5,952 (43.4)	290 (34.3)	7,559 (50.6)	283 (34.5)

資料 ;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5.
全羅北道, 主要經濟指標, 1985.

한편, 地域別 雇傭構造에 따른 賃金率의 隔差를 살펴 보면 表 12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85년 全國의 全産業平均을 100 으로 했을때 地域別 賃金水準이 全國水準을 上回하는 地域은 서울,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인데, 특히 서울과 제주가 他地域에 비하여 賃金水準이 높는데 이는 他地域에 비하여 관리, 사무직의 근로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며, 反面에 業種 構成相 製造業體가 많은 부산, 경기, 전북, 대구, 인천, 충남지역은 生産職의 比重이 커져 相對的으로 賃金水準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12 >

地域別 全産業月平均 賃金水準 (1985)

(單位 : 千 圓)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일합계액	314	365	258	285	289	276	342	317	303	284	337	295	322	357
지 수	100	116	82	91	92	88	109	101	96	90	107	94	102	114

또한, 地域隔差의 質的인 側面을 把握하기 위하여 13 개시도의 産業別 平均 賃金率을 1982년과 1984년의 資料를 利用하여 賃金成長率時差 (growth rate differentials) 를 産出하였고, 이를 다시 加重要因과 競争的要因으로 分類하였다.¹³⁾ 地域別 賃金の 成長率時差를 分析한 결과는 <表 13 > 과 같다.¹⁴⁾ 1982년부터 1984년까지 全國의 平均賃金은 18.6% 成長하였고, 慶北과 慶南을 제외한 全地域에서는 全國에 비하여 높은 實質成長率을 보여 주고 있다. 地域別 賃金成長率의 質的側面을 검토하기 위하여 總時差를 加重要因과 競争力 要因으로 分離해서 살펴보면 유리한 産業構造 (全國的으로 高成長을 보여주는 産業構成比가 높은 경우, 즉 全國的으로 보다 높게 지불

13) 崔在善, “ 地域經濟論 ”, 法文社, 1980. p.373-375.

14) 黃鎬煥, “ 韓國의 地域間 賃金隔差 및 賃金成長率時差 分析에 관한 考察 ” 論文集, 第 16 輯, 全北大學校 産業啓發研究所, 1986. pp.335-336.

되는 産業構成比가 큰 경우를 가르킨다)를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加重要因은 서울, 강원도, 제주도를 제외한 10개지역은 +時差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에 3개 地域은 賃金率 成長面에서 成長이 느린 産業에 역점을 둔 불리한 産業構造를 가진 反面에 其他地域은 賃金率 成長面에서 全國的으로 빠른 産業에 역점을 둔 産業構造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강원도, 제주지역은 불리한 産業構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競爭力要因이 加重要因을 능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全國의 實質成長率보다 각각 5.38%, 2.82%, 5.33% 높은 成長率時差를 보였다. 또한, 同期間 중 地域産業의 競爭力을 나타내는 競爭力要因은 인천, 전남, 경북, 경남지역에서 각각 -2.42, -3.77, -0.70, -4.53%를 보임으로써, 이들 地域이 賃金成長率 增加面에서 全國的으로 빠른 産業에 역점을 둔 유리한 産業構造를 가졌으나 競爭力이 뒤떨어짐을 알 수 있다. 특기할 사항은 인천, 전남의 경우 負의 경쟁적 요인이 正의 加重要因보다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플러스의 總時差를 보여주었으나 경북, 전남은 産業構造의 有利性보다 더욱 미약한 競爭力으로 인하여 全國보다 각각 0.7%, 3.59%은 낮은 實質成長率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表13> 地域別 賃金成長率 및 時差

지 역	성 장 률	성 장 률 시 차		
		총 시 차	가 중 요 인	경쟁력요인
전 국	18.6			
서울 특별시	23.98	5.38	-1.61	-6.99
부산 직할시	20.81	2.21	1.47	0.74
대구 직할시	24.09	5.49	0.31	5.18
인천 직할시	18.83	0.23	2.19	-2.42
경 기 북 도	19.54	0.94	0.94	0.00
강 원 남 도	21.42	2.82	-4.44	7.26
충 청 북 도	27.56	8.96	0.92	8.04
충 청 남 도	23.51	4.91	0.41	4.59
전 라 북 도	19.95	1.35	0.48	0.87
전 라 남 도	18.96	0.36	4.13	-3.77
경 상 북 도	17.9	-0.70	0.00	-0.70
경 상 남 도	15.01	-3.59	0.94	-4.53
계 주 도	23.93	5.33	-1.51	6.84

따라서, 全北 地域 經濟의 發展을 工業化에 초점을 맞추고 工業構造에서 갖는 構造的 特徵에 따라 地域 發展의 與件을 評價하여 보는 것은 또다른 한편으로 意義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立地係數와 生産特化係數를 活用하여 分析하고자 한다. 經濟基盤 理論에서 地域經濟의 基盤産業과 非基盤産業에 대한 決定方法으로 立地係數가 利用되고 있으며 特定地域의 比較優位産業을 決定하는 生産特化係數는 地域間 特定産業의 競争力을 評價하는 基準으로 活用되고 있다.

全北地域 製造業의 部門別 立地係數는 1971년에 음식료 및 담배 등 3개 部門이 1보다 큰 反面에 섬유, 의복, 가죽공업 등 6개 部分에서 1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들 계수들을 비교해보면 偏差가 크게 나타나 特定 産業에 偏重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全北地域의 生産特化係數는 立地計數와 대동소이하나 제재, 나무製品 部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産業波及效果가 큰 第1次 金屬製造業과 金屬製品, 機械裝備 製造業 部門은 1985년 약 0.1로 전락되어 全北地域 産業의 취약함이 더욱 深化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외 競争力の 弱화로 産業成長이 鈍化 또는 停滯되어 온 勞動集約的인 産業들인 제재, 나무제품업, 종이·인쇄출판업 그리고 음식료 및 담배제조업 등에 특화되어 왔다는 점은 오늘날 全北地域經濟의 相對的 열위를 가중시킨 要因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産業關聯效果와 高度의 技術集約産業의 필요성은 全北地域 産業 構造의 高度化에 絕對的 要件으로 인식된다.

<表 10> 全北地域의 製造業 立地係數와 生産特化係數

	입 지 계 수				생 산 특 화 계 수			
	1971	1976	1981	1985	1971	1976	1981	1985
음식료 및 담배	2.11	2.78	2.00	2.01	1.92	2.77	2.38	2.38
섬유·의류·가죽공업	0.65	0.89	1.17	1.34	0.45	0.61	1.33	1.71
제재·나무제품	3.29	3.87	3.33	2.77	4.01	4.81	4.95	2.28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	1.45	1.28	1.34	1.53	1.83	2.77	2.93	2.96
화학, 석유·석탄, 고무, 플라스틱	0.75	0.63	0.61	0.71	0.49	0.49	0.58	0.68
비금속 광물제품	0.81	0.82	1.35	1.54	0.22	0.31	0.52	1.86
제 1 차 금속제조업	0.40	0.26	0.22	0.38	0.08	0.04	0.02	0.11
금속제품·기계장비제조업	0.34	0.40	0.25	0.24	0.21	0.19	0.12	0.10
기타제조업	0.29	0.54	2.11	1.59	0.44	0.45	1.42	1.42

<表 14> 地域別 社會間接資本 投資 (1983-1985)

	지 역 구 성 비 (%)				1 인 당 투 자 비			
	1983	1984	1985	1983-1985	1983	1984	1985	1983-1985
서울	38.6	44.2	29.2	36.2	1.67	1.88	1.22	1.60
부산	9.2	11.9	7.3	7.2	1.07	1.38	0.84	1.11
대구	4.4	3.5	2.8	3.7	0.90	0.70	0.55	0.71
인천	1.6	1.7	2.8	1.7	0.52	0.52	0.81	0.62
경기	4.8	6.7	10.7	7.7	0.44	0.60	0.91	0.66
강원	4.4	3.0	6.4	4.7	0.96	0.66	1.49	1.02
충북	6.0	3.1	5.8	4.8	1.68	0.88	1.67	1.39
충남	4.5	3.8	1.9	4.0	0.59	0.51	0.26	0.45
전북	2.6	4.3	8.2	5.0	0.45	0.77	1.52	0.90
전남	10.1	5.1	9.3	8.5	1.05	0.54	1.00	0.85
경북	5.1	5.5	6.8	6.5	0.65	0.72	0.91	0.76
경남	6.8	5.3	7.5	7.9	0.77	0.60	0.87	0.74
제주	1.8	1.8	1.3	1.6	1.49	1.50	1.07	1.35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	1.00	1.00	1.00

資料：國土開發 研究院, 제 2 차 國土綜合計劃의 推進 實績 評價(Ⅲ) (資料篇), 1986.

하였다.¹⁵⁾

15) 金鍾基, “社會間接資本投資(1970-1985)가 地域에 미친 效果”, 韓國開發研究員, 1987.

<表 15>

地方事業의 投資實績, (1983-1985)

(單位: 億원, 1985년 不變價格, %)

	인구정착 기반조성	국토개발 기반확충	자원개발 및 환경보존	생활환경 정비	기 타	합 계
서울	9,683 (28.6)	12,461 (36.9)	8 (0.02)	11,503 (34.0)	143 (0.4)	33,798 (100.0)
부산	10 (0.1)	5,928 (68.9)	7 (0.1)	2,553 (29.7)	107 (1.2)	8,605 (100.0)
대구	198 (6.2)	550 (17.2)	2 (0.1)	2,427 (76.0)	16 (0.5)	3,193 (100.0)
인천	262 (14.5)	487 (27.0)	14 (0.8)	932 (51.7)	107 (5.9)	1,802 (100.0)
경기	1,690 (25.2)	650 (9.7)	956 (14.2)	3,418 (50.9)	0 (0.0)	6,714 (100.0)
강원	1,206 (29.5)	463 (11.3)	962 (23.6)	1,451 (35.5)	0 (0.0)	4,082 (100.0)
충북	1,878 (42.7)	619 (14.1)	908 (20.7)	987 (22.5)	1 (0.02)	4,393 (100.0)
충남	492 (16.1)	829 (27.1)	577 (18.9)	1,093 (35.7)	70 (2.3)	3,061 (100.0)
전북	384 (8.4)	907 (19.9)	2,083 (45.9)	1,126 (24.7)	66 (1.4)	4,566 (100.0)
전남	1,331 (18.4)	1,932 (26.7)	2,155 (29.8)	1,801 (24.9)	8 (0.1)	7,227 (100.0)
경북	1,167 (22.4)	715 (13.7)	1,882 (36.1)	1,440 (27.6)	9 (0.2)	5,213 (100.0)
경남	1,148 (19.6)	585 (10.0)	1,682 (28.7)	2,214 (37.7)	240 (4.1)	5,869 (100.0)
제주	383 (26.2)	114 (7.8)	228 (15.6)	730 (49.9)	8 (0.5)	1,463 (100.0)
전국	19,832 (22.0)	26,240 (29.2)	11,464 (12.7)	31,675 (35.2)	775 (0.9)	89,986 (100.0)

資料: 國土開發研究院,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의 推進 實績 評價(Ⅲ), 1986.

IV. 結 論

지금까지 全國 및 地域間 比較를 통해서 全北地域 經濟의 構造的 特徵을 分析하여 보았다. 全北地域은 1980 년대에 이르기까지 全國對比 人口, 附加價值生産額이 극히 微弱할 뿐만아니라 産業構造에 있어서도 韓國 傳來의 二重構造가 ฝัง하는 가운데 全國 最下位의 低成長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低成長率의 原因은 여러 側面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特히 經濟構造面에서 볼때 全北地域은 第1次 産業部門에 있어서 就業 人口 (54% 이상)의 比重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部門의 專門化가 相對的으로 漸高되어왔음에 비하여 附加價值率은 3 部門중 가장 底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계속 漸減되는 相反된 入場에 있었던 것이 가장 基本的인 要因이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韓國經濟의 급속한 成長에도 불구하고 全北地域은 長期間 낮은 成長率을 保持하고 있어서 높은 成長을 지속해온 여타지역과의 地域隔差를 더욱 擴充시켜왔고 결국 沈滯地域을 낳게 하는 여러가지 問題점들을 露出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中心으로 全北地域經濟構造의 主要現象을 간략히 要略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全北地域의 産業構造는 3次産業 > 1次産業 > 2次産業의 順으로 나타나있다. 産業迂迴도가 큰 2次産業이 가장 不振한 地域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全北地域의 落後性을 深化시키고 地域隔差를 擴大시킨 主要인이 되어왔다고 생각된다.

둘째, 이러한 産業構造의 脆弱點은 地域總生産에 반영되어, 1970-85년 동안에 全北地域總生産의 成長率을 10.8%로 他地域에 비하여 가장 낮은 成長率을 보였으며 地域成長指標인 1人當 地域總生産의 比較에서도 全北地域은 13개 市道중에서 12位로 地域間隔差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한, 地域間 經濟隔差에서도 全北地域은 個人住民所得成長率이 56.84%로 國民所得成長效果의 109.69%에 커다란 差異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地域은 36.46%로 가장 급속한 成長을 이룩한 反面에 全北地域은 -40.87%로 오히려 심각한 鈍化現象을 나타나 地域隔差가 가장 극심한 地域으로 되었다.

셋째, 産業別 雇傭構造에 있어서 1次産業 > 3次産業 > 2次産業의 順으로 나타나 脆弱性이 크다. 특히 1次産業雇傭人口의 固定성과 2次産業雇傭人口의 底水準은 全北地域經濟가 沈滯된 主要인이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地域別 雇傭構造에 따른 賃金率의 隔差를 보더라도 全北地域의 賃金水準은 全國水準보다 작은 90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全北地域의 賃金成長率을 보면 19.95%로 忠北보다 7.61% 포인트가 작은 포인트가 작은 成長을 보이고 있다. 한편, 雇傭人口에 대한 全北地域의

製造業 立地係數를 보면 勞動集約産業인 음식료 및 담배, 제재·나무제품제조업, 종이제품, 인쇄출판제조업에 特化되어 있고, 生産迂迴度가 큰 第1次金屬과 金屬製品, 機械裝備製造業部門은 專門化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全北地域産業隔差의 脆弱함을 보여주고 있다.

네째, 全北地域의 落後性은 社會間接資本의 投資가 貧弱한데서도 찾아 볼 수도 있다. 또한, 全北地域은 大都市地域에 비하여 生活環境整備部門 및 人口 定着을 위한 基盤助成에 대한 投資比重이 相對的으로 낮은 反面에 境地整理, 農業用水開發 등 農業基盤助成을 中心으로 하는 資源開發 및 環境保全部門의 投資比重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現況分析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落後된 全北地域의 經濟成長을 促進시키기 위하여는 地域經濟의 制約的要因을 除去할 수 있는 方案을 우선적으로 講究하여야 하며 地域經濟의 成長潛在力을 最大한으로 利用하여 地域內에 自發的 投資가 이루어지도록 實效性있는 開發戰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全北地域의 工業化를 促進시키고, 産業構造改善, 雇傭基盤 擴充, 또한 社會間接資本의 과감한 投資등 積極적인 努力으로 地域經濟構造를 改善시킴으로써 地域經濟成長을 促進시킴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 地域隔差를 縮小시키고 國土의 均衡있는 空間秩序를 確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根本的인 改善의 方向은 全北地域住民의 積極的인 開發意志가 先行되고 또한 國家의 地域開發政策과의 調和속에서 地域經濟構造를 改善할 수 있으리라 본다.

參 考 文 獻

- 金安濟, 環境과 國土, 서울, 傳英社, 1979.
- 崔在善, 地域經濟論, 서울, 法文社, 1981.
- 李滿, 地域經濟學, 서울, 傳英社, 1981.
- 崔相哲外 14 人, 韓國都市開發論, 一志社, 1981.
- 宋丙洛, 韓國經濟論, 서울, 傳英社, 1982.
- 朴西號外 7 人, “地域開發論” 녹원출판사, 1988.3, pp.258-292.
- 工業配置計劃研究班, “企業의 立志尺度要人分析” 産業研究院, 1987.1 pp.3-59.
- 林永大, “工業立志의 研究同鄉: 地域論의 接近”. 釜山女子論文輯, 第9輯, 1985, pp.301-328.
- 崔洛弼, 全北地域經濟構造의 變化推移에 관한 研究, 全北大學校論文集 第26輯, 1984.
- 柳旺烈, 李東信, “地域開發과 地域經濟活性化問題”, 國土計劃, 第21卷, 第1號, 1986. pp.25-27.
- 黃鎬榮, 韓國의 地域間賃金隔差 및 賃金成長率 時差 分析에 관한 考察, 論文集, 第16集 全北大學校 産業開發研究所, 1986, pp.335-336.
- 金鍾基, “社會間接資本投資(1970-85)가 地域成長에 미친 效果, 韓國開發研究院, 1987.
- 朴曉成, 全羅北道地域經濟構造의 改善方案에 관한 研究, 한남대학교, 대학원, 1983.
- 河在龍, “地域間 所得隔差의 人口移動에 미치는 影響”,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 1973.
- 安斗淳, “都市經濟의 構造分析과 政策手”,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도시문제, 1982.9.
- 金地烈, “서울시의 空間構造分析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1978.
- 姜聳孝, “忠南地域 經濟開發戰略의 考察”, 송전대학교, 地域開發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2.
- 金安濟, “地域間 經濟的 隔差에 관한 測度研究, 韓國의 經濟研究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環境大學院, 環境論輯, 第1卷, 第1號, 1974.
- 金安濟, “地方財政과 地域經濟”, 대한지방행정공제회, 地方財政, 1982.8.
- 崔雲植, “全羅北道 工業用水 供給방안”, 全羅北道 論文集, 第6輯, 1976.3.

住民所得年報, 內務部, 1965-1985.

經濟統計年報, 韓國銀行, 1963-1985.

全北統計年報, 全羅北道, 1963-1985.

全州市 統計年報, 全州市, 1963-1985.

韓國연람, 韓國 연람사, 1963-1985.

全北연람, 全北新聞社, 1963-1985.

G. Myrdal,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ment Regions, 1957.

A.O. Hirschman,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1958.

C.G. Clark, The Conditions of Economic Regress, 1951.

L. Reissman, The Urban Process, New Work: Free Press, 1970.

Bendavid, Avrom, Regional Economic Analysis for Practitioners, New York: MIT Press, 1960.

Nurkse, Ragnar,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Siebert, Horst, Regional Economic Growth: Theory and Policy, Scranton: International Textbook Co., 1969.

Joo Young Lee, Regional Politische Enisatzmoglichkeiten Verkehrspolitischen Aktivitaten in sud Korea. Gesellschaft fur Wirtschaftsschafts, 1982.

Gerald M. Meier,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Carol, Hans, "the Hierarchy of central Functions within the city", Annals of the Associations of Geographers 10, 1960.

B. Goodall "The Economic of Urban" Oxford: Pergamon Press, 1972 pp. 205-232.

